

S - 8

총의치 악간관계기록을 위한 임상적 Tips



정 창 모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 1984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졸업
- 1987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보철과 레지던트 수료
- 1992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학위 취득
- 1994년 미국 UCLA치과대학 방문교수
- 현재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부산대학병원 치과 보철과장

성공적인 총의치치료를 위해서는 올바른 인상 채득, 정확한 악간관계기록, 그리고 조화로운 교합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악간관계는 접번측과 같은 해부학적 기준점에 대한 악골관계를 의미하는 orientation relation 과 상하악 간의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삼차원적 악골관계를 정확히 기록하여 교합기에 전달함으로써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총의치 제작이 가능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총의치 치료에 있어 악간관계를 올바로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과 그에 따른 많은 비교연구가 문헌을 통해 소개되고 임상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 치과의사들은 학부교육을 통해 오히려 지나치리 만큼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orientation relation을 위한 안궁전이법 또는 소위 standard technique, 올바른 수직적 악관계를 결정하는 기계적 또는 생리

적인 방법, 그리고 수평적 악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하악유도법이나 gothic arch tracing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작한 총의치의 유지력 및 안정성 불량, 저작불능, 지속적인 외상성 궤양의 발생 등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의 의치를 검사해보면 대부분 교합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잘못된 악간관계기록이 원인이라는 것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은 악간관계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기록을 채득하는 술식 상의 문제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경험 미숙이나 자연치열과 다른 무치악 상태의 이해부족이 원인일 것이다.

이에 본 연제에서는 총의치 환자의 악간관계기록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연자의 경험을 통해 비교적 쉽고 오차가 적게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악간관계기록방법과 아울러 악골흡수가 매우 크게 일어난 환자에서 소위 기능적인 악간관계기록방법을 함께 소개하고 토론해보고자 한다.